

관광도시 조성 주력... '익산관광' 500만시대 연다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 등 동부권 중심 기반시설 건립 본격화 탐방센터 내년 하반기 착공...코스체험형 복합놀이시설도 추진

익산시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익산관광 500만시대를 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한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본격화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익산시는 먼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에 집중한다.

이 사업은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국비 23억원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전통문화체험관과 관광안내소 등은 6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주차장과 광장, 녹지공원 등은 올해 내 완공된다.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세계유산과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조성된다. 총 사업비 21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 국비 확보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공유재산 심의와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탐방센터 건립과 부지조성에 대한 설계 공모,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센터에는 백제유적 종합안내관과 문화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 전망대, 교육장, 주민참여공간, 가상체험관과 함께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유적 간 연계 환승시설 등이 들어선다.

인근에 위치한 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 일원에도 기반시설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전북도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공룡테마공원과 연계해 체험형 관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곳에는 오는 2024년까지 연차별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주제별 코스체험 복합놀이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건립된다.

보석어트벤처와 하늘자전거길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기존 노후 시설 정비와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익산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조감도.

이를 토대로 익산시는 세계유산과 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활성화로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금마와 왕궁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다"며 "완공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j@kwangju.co.kr

'순창 짝GO! 선물 받GO!'

군, 6월 한달 이벤트 진행

순창군은 6월 한달간 지역 관광지를 방문해 사진을 찍으면 순창의 특산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순창 짝GO! 선물 받GO!'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50명에 한해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순창군이 요구하는 총 5가지 미션 중 3가지 이상을 수행한 사진을 순창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5가지 미션 중 필수미션은 2가지로 ▲강천산 병풍폭포 앞에서 인증샷 ▲체계산 출렁다리 인증샷이며, 선택 미션은 ▲장군목욕원지 인증샷 ▲향가유원지 인증샷 ▲지역 내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영수증 인증샷 등 3개다.

미션을 수행한 관광객에게는 순창 장류 세트(된장 100g, 고추장 100g, 간장 100ml) 및 순창 발효드립 커피팩(7g×5개입)과 함께 한 장의 카드로 전북도 관광지 자유 이용시설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카드가 제공된다.

순창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순창지역 거주자 및 순창에 주소를 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장학재단이 지역의 각계각층 21명으로 된 후원회를 구성, 발족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인재 키우기 힘 모은다...고창장학재단 후원회 발족

고창군과 지역민들이 고창인재 키우기에 힘을 모은다.

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유기상 고창군수)은 지난 22일 고창인재 키우기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구성, 발족했다.

후원회는 지역인재 양성에 열의를 가진 각계각층 21명으로 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각자의 활동영역에서 고창군장학재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을 홍보하는 등 장학재단을 돕는 활동을 펼친다.

유기상 이사장은 "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식사랑 잘 짓고, 사람 잘 키우는 고창군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많은 이들의 뜻이 모아지면 아이들

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고창의 미래는 밝아진다"고 격려했다.

고창군장학재단은 1998년 설립돼 서울-전주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하계 과학캠프 및 명문대학 진로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장학생 선발기준(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에 '농생명식품 인재육성' 장학생을 추가해 미래 고창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억8600만원의 기탁금을 모은데 이어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도 1억3900만원을 조성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시 대야면 들녘에서 자율주행 직진형 이앙기를 활용해 모내기를 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모내기도 '자율 주행' 시대...인건비 등 영농비 절약 효과

군산 대야 들녘서 '1인 이앙작업'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 이앙기를 시운전한 권철오(54) 씨는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쌀 심리향(전북10호)을 드문도 심기로 ㎡당 165주씩 이앙했다"며 "육묘도 절약하고 자율주행 이앙으로 혼자서 편리하게 모내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미정 군산시 기술보급과장은 "스마트 농기계는 농촌의 인력 수급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스마트 팜과 접목한 스마트 농기계 보급을 통해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인 이앙 작업이 가능해 인건비 등 영농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군산시가 모내기도 자율주행시대를 열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야면 들녘에서 직진 자율주행 이앙기를 이용한 모내기 작업이 이뤄졌다.

이날 선보인 자율주행 직진형 이앙기(대동농기계 DRP60)는 최초 1회 직진 자동 레버를 조작해 간편하게 직진 자동 구간을 등록하면 해당 구간 내에서 이앙기가 자동으로 움직여 작업자는 별다른 조작 없이 모를 심을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태인축구장 조성 등 현안 설명 정읍시, 언론브리핑 재개

정읍시가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을 재개했다. 지난 2월 울머 첫 언론브리핑을 실시했다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개월만이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재개한 언론브리핑에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경제환경국은 주요 현안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지 분양 등 일자리창출(첨단산업과) ▲신대인을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공동체과) ▲미세먼지 저감-대응사업(환경과)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사업(산림복지과) 등을 브리핑했다.

특히,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이용과 가맹점 모집(지역경제과), 태인축구장 조성(시설관리사업소)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정읍시는 정례브리핑을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연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